

일제 말기 타이완 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시선(視線)과 병 - 왕창승(王昶雄) 「분류(奔流)」를 중심으로* -

이성주**

I. 서론 : 제국주의와 시선의 문제

90년대 이후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일각에서 ‘근대문학’이 형성된 조건들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주요 연구 동향으로 떠올랐고, 이와 관련하여 이데올로기 혹은 제도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문학을 읽는 방법론이 유력해졌다. 이러한 흐름은 ‘남성’, ‘엘리트’, ‘서구’, ‘국가’ 중심으로 쓰인 ‘문학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물론 이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

* 논문의 초고는 2021년 9월 25일 대만의 4개 대학 학술 교류회 <2021 「清成政臺」臺灣文學研究生學術交流研討會>에서 발표하였다. 당시 토론을 맡아준 대만대의 蘇峻 그 전에 논문을 읽고 조언을 주신 대만 정치대의 최말순, 吳佩甄 선생님 그리고 본고의 심사위원분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깊이 감사드린다.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대만정치대 대만문학연구소(복수학위 과정) 박사수로

로 남겼는데, 그중 하나는 단일한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탈국가적(trans-national)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의 근대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근대문학 형성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제도, 번역, 관념, 문화 등을 탐구하여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타이완 학계의 교류가 점차 많아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¹⁾

본 논문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황민화 시기 타이완에서 중요한 소설로 언급되는 왕창송(王昶雄)의 「분류奔流」²⁾에 나타난 ‘시선’의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선’이란 근대에 들어와 ‘특권화’된 감각을 말하는 것으로 시각이라는 감각이 근대에 들어 어떻게 특권적인 감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논의가 있다.³⁾ 그러나 본 논문에서 특히 주목

-
- 1) 타이완과 한국의 문화·문화를 비교연구하는 천페이전(陳佩甄)은 서구국가와 동아시아 국가 간 비교연구, 그리고 동아시아 내 국가 간 비교연구가 활발하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지닌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만 유독 적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 자체가 서구 중심의 권력 메커니즘의 작동과 관련된다. 물론 역사나 문화가 그저 유사하기 때문에 타이완과 한국을 비교연구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타자로서의 동양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내에서도 변방의 위치에 놓이는 한국과 대만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제국 주변부의 특수한 정치구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점이다. 陳佩甄(2016). 翻譯國族「她」者：南韓殖民時期女性第三人稱代名詞的創造與寓意. 台灣文學研究學報. 이성주 옮김(2022). ‘그녀’라는 역어: 식민지 시기 대만과 조선에서의 여성 3인칭대명사 발명. 한국문학연구, 69, 545-546.
 - 2) 왕창송(王昶雄, 1916-2000), 본명은 왕릉성(王榮生)이다. 13세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문학 과로 대학에 입학했다가 치과로 전공을 바꾸었으며 1942년에 졸업하고 대만으로 돌아와 병원을 개업하였다. 그러한 경험이 바탕이 된 중편소설 「분류(奔流)」가 그의 대표작이며, 이 소설은 타이완에서 저우진보(周金波)의 「지원병(志願兵)」(『문예타이완』, 1941.9), 천취취엔(陳火泉)의 「길(道)」(『문예타이완』, 1943.7) 등과 함께 황민화 시기 중요한 소설로 손꼽힌다. 「분류(奔流)」는 일본어로 1943년 7월 31일 『타이완문학(臺灣文學)』을 통해 발표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원문 王昶雄 奔流, 河原功編(2007), 王昶雄作品集, 東京: 綠蔭書房. 과 중국어 번역본 王昶雄 奔流, 鍾肇政譯(2014), 施淑主編, 日據時代臺灣小說選, 臺北: 麥田出版. 을 참조하되, 인용은 한국어 번역본인 송승석 옮김(2006), 식민주의, 저항에서 협력으로 -일제 말기 타이완 소설선. 서울: 역락. 을 따랐다. 다만 일부 번역을 수정하였다.
 - 3) 이에 대해 천정환(2009). 관음증과 재현의 윤리 :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적 시각’의 성립에 관한 일고찰. 사회와 역사, 81. ; 시각과 신체 규율에 대한 담론적 논의로는 이영아(2005). 신 소설에 나타난 육체에 대한 규율권력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17. ; 시각, 자문, 근대의 관계

하고자 하는 ‘근대적 시각’이란 의학, 그중에서도 해부학, 생물학의 발생과 관련되는 것으로 제국 통치의 기반이 된 지식 담론과 결부되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통치 초기에 총독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고토신페이(後藤新平)는 ‘생물학 원칙’에 근거하여 식민통치의 기반을 다지는데,⁴⁾ 고토신페이의 통치 기본원리인 ‘생물학 원칙’의 의미는 모호한 면이 없지 않지만 대만인과 일본인은 ‘다른 생물’이라는 입장에 근거, 생존경쟁이라는 명목 아래 대만의 위생, 문화, 토지 등을 조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⁵⁾ 이는 물론 ‘다름’을 존중하는 다원성의 원칙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생물 사이에는 종별의 차이가 있으며 생존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진화론에 의거한 것이다. 의사 출신인 고토신페이의 눈에 식민지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병)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공간이었고 비정상(병-식민지)이 정상(건강-문명)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낳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논리의 기반이 되는 ‘시선’이라는 감각, 그것은 당연하게도 우월하다는 감각과 결부되는, 즉 특권적인 위치를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⁶⁾

를 다른 이론에 대한 정리는 史書美 (2014), 視覺與認同-跨太平洋華語語系表述 呈現 台北：聯經 참조

- 4) 고토신페이의 토지계획과 통치구조와의 관련성은 林文凱 (2017), 臺灣近代統治的形構：晚清劉銘傳與日治初期後藤新平土地改革的比較 臺灣史研究, 24(4). ; 范燕秋 (1998), 新醫學在臺灣的實踐(1898-1906)-從後藤新平《國家衛生原理》談起 新文學, 9(3). ; 고토신페이의 도시계획에 내포된 ‘생물학원칙’과 ‘진화론’ 연결의 의미는 김나영 (2014),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유기체적 도시 및 도시계획론. 일본연구, 37, 197-200. 참조
- 5) 고토신페이의 유명한 언설 중 하나는 “식민지행정계획은 과학의 진보를 눈앞에 둔 지금 생물학원칙에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곧 농업, 공업, 위생, 교육, 교통, 치안의 발전을 뜻한다. 만약 이러한 영역의 발전을 이룩한다면, 우리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와 함께 대만인에 대해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대만인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작은 이익을 탐하며, 체면을 중시한다.”는 발언도 중요하다. 이처럼 고토신페이의 생물학원칙은 생존경쟁을 위해 발전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대만의 도시계획과 대만인의 특성에 대한 개조작업의 중요성을 말하고 대만을 통치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고토 신페이의 언설은 다음 책을 참고 歐人鳳 (2015), 臺灣出發，踏查東亞：『臺灣日日新報』主筆木下新三郎的東亞遊記(1906), 台北：秀威資訊, 37.
- 6) 물론 이는 고토신페이가 유럽(독일)에서 유학한 경험이 접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서구에서의 특권화된 근대적 시선 역시 ‘의학’에 대한 인식변화가 결정적이다. 특히 종교와 관련하여,

이러한 시선은 특별히 대만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다.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에 적용되었던 인종주의적 분류는 같은 방식으로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다. 김철의 연구에서 이미 조사가 된 것처럼⁷⁾, 해부학자인 제국의 의사 구보다케 시(久保武)는 1907년 대한병원에서 근무하며 조선인의 신체를 조사하고 ‘과학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특히 그는 조선인의 신체 특성을 규정하면서 그것을 일본인의 신체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이때 조선인 신체의 특징은 일본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성격, 행동, 능력 등과 결부된다. 예컨대 조선인은 골격이 크고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식으로 다소 동물적인 특성들을 조선 일반의 신체에 부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열등하고 ‘야만’적인 이미지를 조선인에게 덧씌우는 것은 근대 ‘문명화’를 거친 ‘일본인의 신체’를 기준에 두고 식민지인의 신체를 타자화하는 제국주의 통치의 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는 식민지 초기부터 유지되어온 이러한 인종주의적 신체 담론과는 표면적으로 모순되는 정책이 필요했다. 총력전 체제하에서는 식민지 청년들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그들을 국가의 ‘바깥’에 위치한 외지인이 아니라, 국가 ‘안’으로 포섭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조선에서는 ‘내선일체’, 타이완에서는 ‘내대일여(內臺一如)’라는 수사하에 일본에 동화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지닌 청년들의 발견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내과의사’에 비해 하등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외과의사’가 지위 상승한 과정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 루인의 논의에 따르면, ‘신이 몸을 주었다’라는 관념이 자리 잡았을 때 몸을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정신이 육체에 비해 우월한 것(육체는 껍데기)이라는 데카르트 이후 ‘몸을 기계로 보는 관점’이 생겨, “신체 훼손이 영혼의 훼손이나 모독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세계를 해석하는 주체가 신에서 인간으로 바뀌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면서 세계를 ‘보는’ 인간(정확하게는 특정 조건의 ‘남성’)의 시각 경험은 절대적 지위를 점한다. 시각 경험이 중요해지면서 원근법으로 세계를 표현하고 좌표를 통해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질병이 좌표점을 ‘획득’하면서 병은 몸의 특정 부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보는 인간’의 탄생, ‘원근법’, ‘해부학’ 등은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논리와 함께, “인종 차이를 해부학적, 과학적 사실”로 만들기 위한 작업과 이어진다. “기준과 규범”은 “백인 남성의 몸”이었고, 그 외의 몸들은 열등한 몸이 된다. 루인(2011). 의료 기술 기획과 근대적 남성성의 발명. 남성성과 젠더. 서울: 자음과모음, 63-93.

7) 김철(2013). 비천한 육체들은 어떻게 응수(應酬)하는가 -산란(散亂)하는 제국의 인종학(人種學), 사이間SAI. 14. 특히 1장 참조.

는 기존 제국의 ‘시선’이 일본인의 신체와는 다른 신체로 분류했던 식민지의 ‘병든 신체’를 ‘건강한 신체’로 재발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물론 그것이 식민지인을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젊은 청년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과는 다른 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황민문학’⁸⁾은 대만과 한국 양국에서 모두 총력전 체제하에 단일한 이념에 휩쓸린 획일화된 문학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 ‘시선’의 문제를 경유해서 들여다보면, 이 시기 문학은 생각보다 복잡한 맥락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왕창송의 「분류」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첫째, 소설의 서술자가 ‘해부학자’ 출신의 의사라는 점이다. 그는 ‘조선인’, ‘일본인’, ‘대만인’ 등을 생김새를 통해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며,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선은 앞에서 말한 인종주의적 시선과 관련된다. 둘째, 서사가 진행되면서 이 해부학자의 ‘시선’은 생김새 뿐 아니라, 심리, 영혼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 해부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이상적인 식민지인’이었던 이토의 ‘정신’에 문제를 일으키고, 새로운 통치방식에 적합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균질한 서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은 중요하다. 본고는 이 소설을 제국의 통치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중심’적 시선(통치체제)에서 다른 ‘중심’적 시선으로의 이동을 합리화하는 서사로 규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동’하는 시선 사이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장면들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일제 말기,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일반적으로 황민화 시기라고 불리는 이때, 두 식민지의 상황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⁹⁾ 제국 일본이

8) 한국에서 ‘국민문학’이나 ‘친일문학’ 혹은 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일제말기 문학이라고 부르는 황국 신민화 운동 시기의 문학을 타이완에서는 보통 ‘황민문학’이라고 지칭한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 시기 소설이 자발적으로 체제에 순응했다고만 볼 수 없고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황민‘화’ 문학이라고 부르자는 주장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명칭을 따라 ‘황민문학’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양쪽 식민지에 시행한 제도는 유사했고 당시 발표된 양쪽의 문학 역시 비슷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조선의 일제 말기소설을 직접적으로 함께 다루지 않지만 「분류」를 분석하는 것이 한국 문학을 읽는 데에도 시사점이 있으리라고 본다.

II. 의사와 병

일반적으로 논자들이 이 소설에서 주목하는 것은 의사인 ‘나’가 두 개의 일본문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일본인이 되려면 타이완과 철저하게 단절해야 한다는 이토 하루오의 입장과, 타이완에 대한 그리움과 자긍심을 갖고도 일본인이 될 수 있다는 린보니엔¹⁰⁾의 입장 사이에서 ‘나’가 동요하며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소설은 황민화 정책에 순응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와 반대로 당시의 체제와 대립하는 대만인 정체성의 고뇌를 그렸다는 평가로, 달리 말하면 제국의 서사를 그

- 9) 대만의 역사학자인 저우원야오(周婉芳)는 황민화 정책이 당시 대만과 조선에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반응은 어떻게 달랐는지 여러 통계를 활용하여 비교한다. 그에 따르면 대만과 조선 양쪽에서 사회풍속 개선(신사참배 등), 국어(일본어)사용, 창씨개명, 지원병 제도 등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정책이 시행되는 방식과 식민지의 반응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령 일본어 상용률, 지원병의 지원률 등은 타이완이 월등히 높았고, 황국신민 서사를 외우도록 강요한 것은 조선에서만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지만, 간략히 말하자면 조선에서 황국신민운동에 대해 더 극렬하게 반응하였고 총독부도 타이완에서보다 조선에 정책을 더 강압적으로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周婉芳 (2003). 從比較的觀點看臺灣與韓國的皇民化運動. 海行兮的年代: 日本殖民統治末期臺灣史論集. 台北: 允晨文化, 33-76.
- 10) 한국어 번역본에는 林柏年이 ‘린바이니엔’으로 표기되어 있다. 익명의 심사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당대 타이완의 맥락을 고려하면 일본어로 쓰인 이 소설에서 인명이 어떻게 발음되었는지는 언어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다만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고, 현 대만의 학술장에서 해당 인물은 ‘린보니엔’으로 발음이 되고 있기에 ‘린보니엔’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더불어 필자가 확인한 중국어 번역본만 6종이며 시기와 역자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르고 특정 판본에는 검열로 인해 삭제된 대목도 있다. 이 역시 소설을 읽을 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본고의 관심사는 아니기에 일본어 원문 그리고 대체로 그것을 충실히 번역한 최근의 중국어 역본을 참조했다는 점만 밝혀둔다.

렸다는 평가와 민족주의 서사를 그렸다는 평가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든 소설 안에서 두 입장의 대립에 주목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본고에서는 두 입장을 ‘대립’으로 간주하기보다, 우선 의사인 서술자의 시선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¹¹⁾ 의사는 병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타인을 정상/비정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식(권력)을 지녔다. 소설이 전개되면서 이러한 정상/비정상의 구분선은 변화를 겪는다. 이를 살펴보는 것은, 이 소설이 단순히 황민문화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을 넘어 문학이 당대의 이데올로기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소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서술자의 ‘시선’이다. 이 소설은 1인칭으로 진행되고 서술자 ‘나’의 ‘관찰’과 ‘생각’으로 서사가 전개되기 때문에, 독자 또한 서술자 ‘나’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는 서술자의 ‘시선’이 객관적·중립적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나’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제국의 시선과 겹쳐질 때가 많은데, 그러한 서술자의 시선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먼저 주목해 볼 것은 ‘나’가 의사(특히 해부학 연구원 출신)라는 점이다.

서술자가 의사임을 주목하지는 것은 그저 감기처럼 실제 ‘병’을 고쳐주는 직업을 지녔다는 사실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일제 말기의 소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소설도 은유와 상징 등 비유적인 수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소설의 배경인 ‘나’의 고향 마을 역시 일종의 제유(提喻)로 사실상 ‘대만’

11) 후이잉이 밝힌 것처럼 기존 연구에서 이 소설은 다소간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논의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후이잉 (2015). 일제말기 한국 국민문화와 타이완 황민문화 비교 연구-중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38-239. 그러나 후이잉 본인이 이토 하루오와 린보니엔을 모두 ‘동화인’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처럼, 천팡밍(陳芳明) 역시 이 소설 안에 두 대립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결국 양 측면 모두 황민 문화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陳芳明 (2011). 臺灣新文學史. 台北:聯經, 205-207.) 소설의 ‘나’가 두 입장 사이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고 제국이 부여한 코드에서 벗어나는 지점을 발견하는 기존 논의도 있다. 李育霖 (2007). 帝國的錯位－王承雄《奔流》中的游移與認同, 台灣文學研究, 1. 다만 이러한 논의들도 소설을 당시의 변화하는 이데올로기와 구체적으로 연관지어 해석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나’의 ‘시선’에 주목하여 소설을 독해하는 경우도 없다.

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그는 그곳에서 ‘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거의 유일한 ‘의사’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술자와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관계는 ‘의사(잠재적)환자’의 관계로 표상되고, 이는 관찰자 ‘나’가 소설의 서사를 끌고 가는 중심인물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물들의 ‘병’을 진찰하고 또 ‘발견’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의사환자의 관계는 식민지(인)-피식민지(인) 관계의 전형적인 알레고리처럼 보인다. 환자의 병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 달리 말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바꾸는 일은 ‘야만’의 땅을 ‘문명’의 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국의 논리로 쉽게 치환될 수 있다. 의사는 관찰하고 발견하는 사람이기에 그의 시선에는 특권적인 위치가 부여되며, 도움을 주는 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기도 한다. 실제로 서술자 ‘나’는 단순히 감기를 치료해주는 인물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소설 시작 부분에서 외모를 통해 ‘반도인(조선인)’, ‘본도인(대만인)’, ‘내지인(일본인)’ 등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그러한 ‘외모’에 의한 인종주의적 시선은 ‘본도인은 패기가 없다, 기백이 없다.’¹²⁾라는 식으로 본도인의 ‘외모’에 열등한 성격, 태도 등을 결합한다. 이렇게 ‘비정상’과 ‘정상’ 혹은 ‘야만’과 ‘문명’을 구분하는 ‘시선’은 ‘비정상(식민지인)에게 끊임없이 정상(내지인)을 모방하는 욕망을 낳게 만든다. 이는 식민지 초기부터 이어진 제국의 주요한 통치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소설의 ‘의사’는 그러한 정상/비정상을 구분하는 시선을 가졌을 뿐 아니라, 저 구분하는 ‘분할선’의 위치를 조정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나’가 ‘이토 하루오’를 보는 시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가 ‘이토 하루오’에 감정을 이입하는 경우가 많아 두 인물을 같은 입장에 놓는 논자들이 많지만, ‘나’와 ‘이토 하루오’는 어쨌거나 의사환자의 관계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12) 王祿雄(1943). 奔流 송승석 옮김(2006). 식민주의, 저항에서 협력으로 -일제 말기 타이완 소설선. 서울: 역락, 387.

1. 이토 하루오와 정신적인 병

‘나’에게는 외모를 통해 본도인과 내지인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선’이 있다. 때문에 이토 하루오를 만났을 때 놀란 것은, 그가 ‘본도인의 얼굴’을 가졌으면서 완벽하게 뿌리부터 ‘내지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찌 됐든 ‘나’의 시선 하에 ‘이토 하루오’가 본도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서술자는 ‘이토 하루오’가 완전히 내지인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정말로 훌륭한 배우”¹³⁾라고 묘사한다. ‘이토 하루오’는 그야말로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의 입장에서, 이토 하루오는 제국을 우월한 것이라 생각하고 충실히 모방하며, 식민지의 문화를 열등하게 느끼는 완벽한 식민주체(colonial subject)이다. 물론 아무리 제국을 모방해도 그것은 복제품에 불과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회의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도 전형적인 식민주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이토 하루오’가 자신의 부모를 부정하고, 오래된 장례관습에 대한 혐오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와 관련된다. 때문에 ‘이토 하루오’는 아무리 노력해도 ‘본도인’과 ‘일본인’ 사이에 놓이는 인물이며, 결국에는 ‘완벽한 연기’가 깨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가 그러한 이토 하루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의 ‘정신적인 병’으로 묘사하는 과정이다.

이토의 삶의 방식이 실제로는 신경과민에 불과하고 천박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어쨌든 나에게서는 하나의 신조가 생겼다. 그건 바로 의술을 통해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사라는 족속이 단지 인간의 육체만을 살피고 정신적인 측면을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나는 깨달았다. 인간의 육체를 진찰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면, 또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을. 의사에 대한 본도인의 맹목적인 동경보다도 더 천박한 것은 없을 것이다.¹⁴⁾

13) 위의 책. 396.

제국의 시선은 야만/근대를 ‘병든 신체/건강한 신체’로 구분하지만 그렇다고 분할선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푸코가 주장하듯 권력은 신체를 그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신체의 욕망을 조작하여 권력이 원하는 신체의 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⁵⁾ 병원, 학교, 군대 등이 푸코에게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의사’의 ‘시선’은 단순히 본도인의 신체에서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체’ 나아가 ‘건강한 정신’에 대한 표본을 발견하고 발명한다.

서술자 ‘나’가 ‘이토 하루오’에게서 ‘정신적인 결합’(신경과민)을 발견하면서, ‘이토 하루오’의 신체에 대한 묘사도 변화한다.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 ‘나’는 서른 살이 조금 지났을 뿐인 ‘이토 하루오’의 머리가 ‘백발’이 된 것을 발견한다. ‘나’는 ‘백발’에는 오랜 세월의 분투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맥락상 ‘이토 하루오’와 같은 식민주체의 형상을 한 인물이 ‘오래된 것’ 혹은 ‘과거적인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장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소설 내부에서 ‘백발’을 지닌 인물들에 대한 묘사를 보자.

나이는 아무리 봐도 육십 고개는 훌쩍 넘어 보였다. 머리는 백발에 가까웠고, 눈은 가늘고 어깨는 넓은 그런 노파였다. (...) 이가 빠져서인지 말하는데 약간 발음이 새었다.¹⁶⁾

역사와 지리를 맡고 있는 타지리(田尻) 선생이었다. 그는 머리가 반백인 중노인에 가까운 남자로서 새우등으로 굽어진 어깨는 아마도 오랫동안 복잡다난한 삶을 견뎌온 탓이리라. 그러나 섬뜩하게 움직이는 그 눈매만은 온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¹⁷⁾

14) 위의 책. 409.

15) 이정우 (1993) 미셀푸코에 있어 신체와 권력. 문화과학, 가을호.

16) 王禮雄 (1943). 奔流. 송승석 옮김 (2006). 식민주의, 저항에서 협력으로 -일제 말기 타이완 소설선. 서울: 역락. 392.

17) 위의 책. 412.

위 인용문은 이토 부인의 어머니에 대한 묘사, 그리고 학교에서 마주친 타지리 선생에 대한 묘사이다. 짧은 묘사이지만, 애초에 이토의 어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이토 부인의 어머니였고, 일본인이기에 교양 있는 모습일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다소간 늙고 어딘가 결함이 있는 신체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 교사 타지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본도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역시 늙고 비정상적인 신체의 모습으로, 또한 성격적으로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묘사는 문명/야만이라는 기준선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인 혹은 일본인을 연기하는 엘리트 식민지인도 늙고 병든다. 이는 신체(외모)를 통해 내지인/본도인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기준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토 하루오’에게서 ‘정신적인 병’이 발견되면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보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젊고 건강한 신체가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물론 이러한 상상의 배후에 총력전 체제하에 식민지에서 가용자원이 필요하게 된 사정이 있다.¹⁸⁾ 그리고 이러한 통치방식의 변화는 소설에서 ‘린보니엔’의 신체를 발견하는 과정과 맞물린다.

2. 린보니엔의 건강한 신체

소설 초반에 린보니엔은 “검도로 단련된 몸이라 아주 건강해 보였지만 또 어딘지 모르게 어린애 티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다.”라고 묘사된다. ‘어린애 티’가 남아 있는 린보니엔은 성격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 소설에도 묘사되어 있듯이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객기가 앞서 과격하게 몸을 흑사시킨 탓

18) (기존의 통치체제하의 식민지가) “일본의 외지로서 언제나 동화주의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생명정치의 바깥에 머물러 있던 ‘이방인(외부인)’으로서의 식민지인들이 전사의 인구 부족에 부딪혀 일본 인구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고, 이들의 건강, 출산, 직업, 복지(행복)와 같은 생명에 관련된 일체의 것이 식민통치권력의 주된 고려와 관심의 대상이” 된 사정. 그러니까 총력전 체제하의 변화하는 통치체제의 기준을 말한다. 공임순 (2012). 전시체제기 징병취지 야담만담부대의 활동상과 프로파간다화의 역할. 한국근대문화연구, 13(2), 421.

에¹⁹⁾ 몸을 다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토 하루오’의 병이 ‘발견’되면서, 린보니엔의 그러한 모습은 열정적이고 ‘신념’을 지키는 행위로 묘사된다.

아마도 환경 탓에 그리 되었을 그의 그 비뚤어진 성격, 그러나 어떤 문체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헤쳐 나가는 그 강인한 기개, 이 모든 것은 나의 머리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그는 낮빛이 창백했다. 더구나 위에서 그의 목을 내려다보았을 때는 아직도 소년의 순결함과 나약함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연습을 하고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일년 혹은 이년을 훌쩍 성장해버린 사람처럼 늙은 느낌을 주었다.²⁰⁾

소설이 진행되어가면서 그는 여전히 어린 티가 나지만, 젊고 강인한 신체와 의지를 가진 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말하자면, 완벽한 신체와 성격을 지니고 있던 이토 하루오가 점점 늙고 병들어가는 것과 달리, 린보니엔의 신체는 점점 건강해지고 그의 성격 또한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이제 본도인/내지인을 차별하는 구분선은 외모로 구분되지 않는다. 린보니엔의 신체가 긍정적으로 묘사되면서, 소설에서 자주 강조되는 것은 ‘일본인의 피’다. ‘피’는 신체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육안으로 본도인/내지인을 구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피’는 내지인-본도인을 ‘일체’화 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물론 이러한 ‘일본인의 피’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린보니엔과 같이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수련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시선이 이토 하루오를 부정하고, 린보니엔을 긍정하는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그 둘은 ‘대조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그 둘이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서술자 ‘나’는 ‘이토 하루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병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이토 하루오’의 어머니를 만나 그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는 ‘가정불화’를 겪었고, “멀리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는 노

19) 王利雄 (1943). 奔流 송승석 옮김 (2006). 앞의 책, 385.

20) 위의 책, 419.

부모에 대한 반항심과 자신의 젊어 넘치는 젊음 열기는 계속해서 그를 몰아세웠고 고학하며 지내는 생활은 그를 고집이 센 인물로 단련시²¹⁾켰다는 것이다. 그의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결함에는 원인이 있고 그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다. 게다가 그도 “체격이 건장한 청년²²⁾일 때가 있었으며 린보니엔과 마찬가지로 열기가 넘쳤던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정확히 말하면 그는 린보니엔과 대립되는 인물이라기보다, 제국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식민지인의 상’을 린보니엔에게 물려주는 인물이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어 ‘과거적인 것’으로 상징되며, 그것은 새로운 신체에게 자신의 ‘젊음’(미래)을 넘겨줘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토’와 ‘어린이에서 젊은 청년’으로 성장하는 린보니엔의 신체는 하나의 자연, 순환의 체계처럼 보인다. ‘나’는 린보니엔의 신체를 관찰하며 “거무스름한 피부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난 오히려 거기에서 모종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꼈다.”²³⁾고 말한다. 또 린보니엔이 ‘나’에게 보낸 편지에는 “기분은 알 수 없는 흥분을 일으키는 이상한 힘 같은 것²⁴⁾을 느꼈다는 문장이 있다. 린보니엔의 신체는 마치 새로 태어나는 새싹과 같고 이토의 늙음과 린보니엔의 성장은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짝패가 된다. 그리고 이 소설의 배후에 체제의 이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체제의 이동이 자연과 순환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대자연의 운명으로 긍정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²⁵⁾

21) 위의 책, 425.

22) 위의 책, 424.

23) 위의 책, 414.

24) 위의 책, 426.

25) 이러한 소설의 구조는 황민화 시기 핵심적인 수사 혹은 서사적 구조라고 할 수 있을 ‘몰락’(죽음)과 ‘재생’과 관련될 수 있다. 식민 말기 과거·현재·미래라는 선형적 시간관 혹은 근대적(진보적) 시간관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몰락’(죽음)이라는 감각이 우세해지고 그와는 정반대로 보이는 ‘재생’이라는 이념이 일종의 짝패처럼 새롭게 부상하였다. 몰락/재생의 서사가 출현하는 배경과 그 작동 방식은 김예림 (2004).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서울: 소명출판. 특히 1부 참조

일찍이 타이완 문화의 오랜 발상지이자 무역항으로 명성을 구가했던 이 폐항이 지금은 이렇게 늦은 봄의 색채로 충만한 대자연 속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은 기이하게도 나의 영혼이 유구한 것들과 또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위대한 사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²⁶⁾

린보니엔이 ‘대만인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대만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서사와 공모하는 지점이 있다. 가령 ‘나’가 린보니엔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대만’의 아름다움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묘사된다. ‘폐항’이라는 과거적인 것이 인용문에서와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아름다움’으로, 다시 그것이 대자연의 ‘법칙’과 ‘영혼’들이 일체화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의 일상이 아닌 ‘폐항’을 타이완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그것을 순환적인 시간 혹은 미적인 틀에 넣을 때, 그것은 소설의 초반부에서 강조되는 ‘일본인의 피’라던가, ‘일본인의 정신’, ‘고대로 올라가야 하는 일본의 지식’과 같은 맥락에 놓이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조선에서의 ‘내선일체’와 같이 본도인과 내지인을 일체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단히 노력해야 일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여전히 차별적인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III. 불안정한 시선과 통제되지 않는 감각

앞의 논의를 통해 이 소설의 중심 서사가 변화하는 제국의 통치 기조와 맞물려 있음을 밝혔다. 즉, 이 소설은 총력전 체제의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공명하며 그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 서술자의 ‘시선’이 제국의 통치체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

26) 王禔(1943). 奔流 송승석 옮김 (2006). 앞의 책, 429.

지에 대해 주목했다. 그러나 ‘보는 주체’를 ‘제국(일본인)’으로, 보이는 대상을 ‘식민지(대만인/조선인)’로 두는 것은 지나치게 전형적이며 또한 불가피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식민지의 엘리트인 서술자 ‘나’ 역시 제국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본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듯, 근대의 ‘보는 주체’와 ‘대상’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몇몇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전복될 수 있는 것이다.²⁷⁾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비록 중심적인 서사가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소설에서 ‘주체’와 ‘대상’의 위치가 흔들리는 지점을 의미화하려 한다. 이는 일견 앞 장의 논의와 충돌하는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에, 어느 정도는 논의가 혼란해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확실히 어떤 종류의 이념을 ‘완전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종류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은폐하지도 못한다. 때문에 서사는 불안정하며 서사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제국의 이데올로기 역시 불안정하다.

그렇다면 ‘시선’의 불안정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서사 안에서 시선의 불안정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인다. 첫째, 앞에서 주장했듯 서술자 ‘나’와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관계는 ‘의사(잠재적)환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 ‘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나-나’의 관계 역시 ‘의사-환자’의 관계로 표상될 수 있다. 둘째, ‘나’의 ‘시각’은 ‘정신병’을 발견하고, ‘병’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 성격, 영혼, 정신을 판별하기까지 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는 근대적인 과학 지식과 제국의 통

27) 지젝은 라캉을 경유하여 역전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제시한다. “라캉이 『세미나 XI』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응시와 눈의 모순된 관계에 대해 되새겨보자. 대상을 보고 있는 눈은 주체 쪽에 있는 반면 응시는 대상 쪽에 있다. 내가 대상을 볼 때 대상은 언제나 이미 나를 응시하고 있다. 그것도 내가 대상을 볼 수 없는 지점에서 말이다.” Žižek, S. (1992). *Looking Awry: An Introduction to Jacques Lacan through Popular Culture*. 김소연 옮김 (1995). *뼈뼉하게 보기*. 서울: 시각과 언어, 221-222.

치체제가 공모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 말미까지 그의 머릿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소리’와 연관되는) 장면이 있다. 그것은 근대적 지식과 식민주의로 특권화된 그의 ‘시각’으로도 의미가 규정되지 않는다. 이 두 지점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소설의 서사는 주로 ‘나’의 관찰과 묘사로 전개된다. 그러나 소설에서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나’는 보는 주체이지만 또한 대상을 통해 자신을 보기도 하는데 특히 이토에 대한 린보니엔의 불만이 드러나는 시점에 ‘나’가 떠올리는 것은 자신의 내지 유학생할, 특히 도쿄에서 만난 일본인 여자의 ‘시선’이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결합이 없는 “순수한 일본식의 매력”²⁸⁾을 지닌 ‘완벽한 여인’의 시선은 그로 인해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결합이 있는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소설의 전반부에서부터 ‘나’는 ‘이토하루오’를 일종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상함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충족하려 한다. 그러나 ‘이토하루오’에게서 결핍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나 자신의 심리조차도 약간은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²⁹⁾ 의심한다. ‘보는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병’이 있다고 의심할 때 서술자의 ‘보는 위치’는 흔들린다. ‘나’의 시선에 타인의 시선이 개입되고 서술자 ‘나’는 보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보이는 대상으로, 의사인 동시에 환자가 된다. 그의 시선은 주체와 객체 사이, 혹은 주체와 객체 모두에 걸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 소설의 ‘나’가 (그것이 황국 신민-되기이든, 타이완인-되기이든 간에) 비균질적이고 복잡한 (비)동일화 과정에 놓인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술자의 시선이 불안정해지면서 실제로 이 소설의 여러 장면에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통제되지 않는 균열 혹은 잉여적 이미지들이 감지된다. 몇몇 장면을 지적할 수 있지만 특히 중요해 보이는 것은 소설의 끝에 서술자의 머릿

28) 王禮維 (1943). 奔流. 송승석 옮김 (2006). 앞의 책, 394.

29) 위의 책, 418.

속에서 명멸하고 있는 무덤가의 장면이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서술자는 “무엇 때문인지 자꾸 무덤가에서의 장면들이 끊이지 않고 내 머리 속에서 명멸하고 있었다.”³⁰⁾고 말한다. 여기서 무덤가의 장면은 물론 이토의 아버지의 장례식이다. 이 무덤의 장면은 그의 ‘시선’이 이토의 ‘정신병’에서 린보니엔의 ‘건강한 신체’로 이동하는 분기점이 되는 장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장례식 이후 ‘나’는 내지에서 유학할 당시 자신이 대만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불안해했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이토에게서 ‘정신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머릿속에서 해석이 불가능한 무덤의 장면이 “법사가 치는 바라 소리”나 “마치 땅 속에서 칩거하는 원혼을 불러 소름이 돋”³¹⁾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무덤가의 장면, 그러니까 타이완식 장례 절차는 이토 하루오에게는 문명화가 덜 된 아반의 것으로 표상되지만, 서술자 ‘나’에게는 무엇으로도 쉽게 규정되지 않는 장면으로 남는다. 다시 말해 당시 제국의 이념 하에 타이완식 장례는 ‘과거’적인 것이고 결별해야 할 것이겠지만, 소설에서 이 장례의 장면은 앞서 ‘자연’과 ‘순환’의 일부가 되었다고 서술한 폐항(과거)과 동일한 맥락에 놓인다고 볼 수는 없다. ‘시선’에 주목해서 말하자면, 장례의 장면은 ‘소리’와 ‘땅 속에 칩거하는 원혼’으로, 그러니까 시각으로 포착되지 않는 감각 혹은 잉여적 이미지로 나타나기에 그 의미가 불확정적이다. 본고에서 ‘시선’을 ‘서사’ 구성의 핵심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소리’로 환기되는 장례식의 장면은 시선의 바깥에서 통제되지 않는 감각이며 서사에 균열을 내고 틈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틈을 벌리는 것은 ‘현재’ 타이완의 일상이며, 그것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서술자의 시야(스크린)에서 사라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³²⁾

30) 위의 책, 431.

31) 위의 책, 405.

32) 저우완야오(周婉芳)에 따르면 황민화 운동 중 사회풍속(종교) 개혁과 관련, 총독부는 식민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술자는 머릿속에서 명멸하는 그 해석 불가능을 참을 수가 없어 산등성이에서 아래로 질주하듯,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달’³³⁾린다. 그것은 이토하루오와 린보니엔 ‘사이’에서 뭔가를 선택한 결단이 아니라, 그 둘 모두에 결박되어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소설을 읽고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는 그저 목적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내달릴 뿐이다.

반복하자면 근대의 특권화된 시각은 야만/문명을 구분하는 시선이기도 하지만, 서양(제국)을 기준으로 삼아 특정한 문화를 ‘과거적인 것’으로 만들고, 단일한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린보니엔의 성장과 이토의 늙음이 일종의 순환으로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서사화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어 ‘어린아이처럼’ 달리는 ‘나’는 어쩌면 청년으로 ‘성장’하는 ‘린보니엔’의 시간도 그렇다고 제국의 충실한 신민이 되기 위해 완벽한 연기를 구사한 ‘이토 하루오’의 시간도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 그 이종의 부정은 목적이 없기에 뚜렷한 서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이 소설 내부에서 완결된 서사를 방해하는 역동성을, 혹은 불확정적인 균열의 지점을 만들어낸다.

기간동안 타이완에 총 68개의 신사를 지었는데 그중 37개를 1937년-43년 사이에 지었을 정도로 황민화 운동 당시 타이완의 풍속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일을 핵심으로 여겼다. 물론 타이완은 조선에서보다 저항의 반응이 극렬하지 않았지만, 다른 황민화 운동과 달리 타이완에서 이러한 종교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周婉婷 (2003). 從比較的觀點看臺灣與韓國的皇民化運動. 海行兮的年代: 日本殖民統治末期臺灣史論集. 台北: 允晨文化, 41-47. 즉, 제국의 시선에 의해 타지화 된 ‘지방’으로서의 타이완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서 사라지지 않는 타이완적인 것이 있다. 이 소설의 특이점은 ‘장례식 장면’에 여러 시선이 교차하도록 놓는 것으로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도 쉽게 환원되지 않게 만든다는 점이다. 다르게 말하면, 다층적이고 복잡하게 얽힌 시선은 장례의 장면을 민족주의의 서사에 귀속시키지도 그렇다고 제국의 서사에 안착시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서사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33) 王禔維 (1943). 奔流. 송승석 옮김 (2006). 앞의 책, 431.

IV. 결론

황민화 시기를 ‘암흑기’로 명명하는 것에는 이 시기가 제국의 이념에 완전히 종속되었으며 민족적 정체성이 말살된 시기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시선일 뿐 아니라 당대를 살아간 주체들의 복잡한 욕망을 들여다보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다. 또한 암흑기는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수사로, 당시를 일종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전후(戰後)의 파시즘 국가의 역사 서술과도 겹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이성을 잃은 상태·파시즘)였다가, 후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이성을 회복했다)’는 전후(戰後)의 서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시기는 ‘정상적인 경로에서 잠시 이탈한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파시즘의 역사를 근대성(이성)의 시간이 마비된 원시적인 것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물론 파시즘 국가가 ‘책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이성 중심의 근대적 시간의 권위가 존속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³⁴⁾

권력이 “실체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속에서 작동하는 것”³⁵⁾이며 유동적이며 하나로 환원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당대의 문학을 균질적이고 통합적인 이념으로 수렴시킬 것이 아니라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텍스트가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황민화 시기를 ‘암흑기’로 보는 문학사적 관점은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당시 일상의 심층에 서려 있는 권력의 메커니즘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고 당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개별 텍스트 내의 상징, 은유 등도 자세히 분석되지 않았다.

34) ‘암흑기’라는 수사에 대한 비판은 2000년대 이후 일제 말기를 다룬 연구서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이다. 특히 본고의 관점에 도움을 준 최근의 연구서로 다음을 참조. Poole, J. (2014). *When the Future Disappears*. 김예림, 최현희 옮김 (2021). *미래가 사라져갈 때*. 파주: 문학동네, 24-26.

35) 황지영 (2020). 식민지 말기 소설의 권력 담론. 서울: 소명출판, 36.

그런 점에서 왕창승의 「분류」는 황민화 운동 당시 권력의 메커니즘과 일상이 재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민족주의 서사와 제국의 서사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는, 혹은 그 둘 모두에 결박되어 있으면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텍스트다. 본고에서는 우선 서술자의 '시선'을 중심에 두고 소설을 재구성하면서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소설이 당시 통치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서사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분석 과정은 소설이 황민화의 제국 이념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기보다, 텍스트와 체제가 맺고 있는 관계가 유동적이며, 텍스트 심층에 작용하는 권력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권력의 주체와 권력의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소설의 서사 곳곳에 균열의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길게 서술하지는 못했지만, 이 가능성을 그려내는 작업은 황민화 시기의 문학에 대한 논의를 여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기존의 이념이 급격히 변화하고, 또한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질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 제국의 서사도 그렇다고 민족주의 서사도 아닌 서사의 가능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분류」에 나타나는 교차하는 시선과 통제되지 않는 불확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독해가 그 가능성을 찾는 출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근대적 시각, 식민 주체, 타이완 소설, 왕창승, 황민화(皇民化)

[참고문헌]

- 공임순 (2012). 전시체제기 징병취지 야담만담부대의 활동상과 프로파간다화의 역학. 한국 근대문학연구, 13(2), 421.
- 김예림 (2004).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서울: 소명출판.
- 김철 (2013). 비천한 육체들은 어떻게 응수(應酬)하는가 - 산란(散亂)하는 제국의 인종학(人種學), 사이間SAI. 14.
- 천정환 (2009). 관음증과 재현의 윤리: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적 시각’의 성립에 관한 일 고찰. 사회와 역사, 81.
- 이영아 (2005).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에 대한 규율권력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17.
- 김나영 (2014).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유기체적 도시 및 도시계획론. 일본연구, 37, 197-200.
- 루인 (2011). 의료 기술 기획과 근대적 남성성의 발명. 남성성과 젠더. 서울: 자음과모음, 63-93.
- 후이잉 (2015). 일제말기 한국 국민문학과 타이완 황민문학 비교 연구-중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이정우 (1993) 미셀푸코에 있어 신체와 권력. 문화과학, 가을호
- Poole, J. (2014). When the Future Disappears. 김예림, 최현희 옮김(2021). 미래가 사라져 갈 때. 파주: 문학동네, 24-26.
- Žižek, S. (1992). Looking Awry: An Introduction to Jacques Lacan through Popular Culture. 김소연 옮김 (1995). 삐딱하게 보기. 서울: 시각과 언어, 221-222.
- 陳芳明 (2011). 臺灣新文學史. 台北:聯經, 205-207.
- 李育霖 (2007). 帝國的錯位－王永雄《奔流》中的游移認同. 台灣文學研究, 1.
- 歐人鳳 (2015). 臺灣出發, 踏查東亞: 『臺灣日日新報』主筆木下新三郎的東亞遊記(1906). 台北: 秀威資訊, 37.
- 周婉瑋 (2003). 從比較的觀點看臺灣與韓國的皇民化運動. 海行兮的年代: 日本殖民統治末期臺灣史論集. 台北: 允晨文化, 33-76.
- 林文凱 (2017). 臺灣近代統治合理性的建構: 晚清劉銘傳與日治初期後藤新平土地改革的比較. 臺灣史研究, 24(4)
- 范燕秋 (1998). 新醫學在臺灣的實踐(1898-1906)-從後藤新平《國家衛生原理》談起. 新文學, 9(3).
- 史書美 (2014). 視覺與認同-跨太平洋華語語系表述 呈現. 台北: 聯經
- 陳佩甄 (2016). 翻譯國族「她」者: 台韓殖民時期女性第三人稱代名詞的創造與寓意. 台灣文學研究學報. 이성주 옮김(2022). ‘그녀’라는 여역: 식민지 시기 대만과 조선에서의 여성 3인칭대명사 발명. 한국문학연구, 69, 545-546.
- 王永雄 (1943. 7. 31.). 奔流. 臺灣文學. 河原功編 (2007), 王永雄作品集. 東京: 綠蔭書房,

133-158.

王永雄 (1943. 7. 31.). 奔流. 臺灣文學.. 鍾肇政譯 (2014). 施淑主編. 日據時代臺灣小說選
臺北:麥田出版.

王永雄 (1943. 7. 31.). 奔流. 臺灣文學. 臺灣文學. 송승석 옮김 (2006). 식민주의, 저항에서
협력으로-일제 말기 타이완 소설선. 서울: 역락.

[국문초록]

근대의 지식은 식민지를 병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제국의 통치를 합리화하는데 기여한다. 이때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이미지 중 하나는 ‘의사’이며, 그의 ‘시선’은 식민지인에게서 ‘병’을 발견하는 특권적인 감각이 된다. 그러나 총력전 체제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제국주의 초기부터 이어졌던 이러한 ‘시선’에 변화가 불가피했다. 전쟁 동원을 위해 식민지인을 단순히 ‘병자’로 보는 시선은 교정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다소간 모순, 갈등 등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시선’의 불안정함을 겪어야 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타이완 소설 중 하나가 「분류(奔流)」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해부학자 출신으로 인종주의적으로 타인을 분류하는 시선을 가진 서술자 ‘나’를 중심으로, 이 소설이 당대 변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어떤 방식으로 서사화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황민화 시기 소설은 단일한 이념에 휩쓸린 문학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기존 연구에서도 다소 단순한 이분법적인 틀로 이 소설이 분석되는 경향이 있지만, ‘시선’이라는 문제를 경유하면 이 소설을 복잡한 맥락에 놓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시선’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소설의 무의식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당대 이데올로기의 흔적을 드러내고 ‘동아시아’라는 보다 넓은 범주에서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Modern Gaze and Illness in Taiwanese Novels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 Focusing on Wang Chang-Xiong's 「*Ben-liu*(奔流)」

Lee, Seong-Ju (Dong-guk University)

Modern science contributes to rationalizing imperial rule by recognizing colonies as pathological. One of the images momentarily given to the ruler is a “doctor,” and his “gaze” becomes a privileged sense to discover the “illness” of the colony. However, in the special historical context of the total war system, a change was inevitable in this “gaze” that had continued since imperialism began. Correcting the gaze of seeing colonists simply as “sick people” for war mobilization was necessary. In this process of change, more or fewer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are unavoidable, and because of this, they had to go through the instability of the “gaze.” One of the Taiwanese novels that shows this well is *Ben-liu* (奔流). This paper shows how this novel narrates the changing ideology of the time, focusing on the narrator, a former anatomist with a racist view of classifying others. There is a strong perception that novels during the Japanization (皇民化) period are standardized literature swept away by ideology. There is a tendency for these novels to be analyzed in a rather simple dichotomous framework in existing studies. Still, this novel can be placed in a complex context through the problem of “gaze.” It reveals the traces of contemporary ideology operating at the novel's unconscious level and provides a context for comparative research in the wider category of East Asia.

[Keywords] Modern gaze, colonial subject, Taiwanese novel,
Wang Chang-xiong, Japanization

논문투고일: 2023년 03월 19일 / 논문심사일: 2023년 04월 03일 /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21일

【저자연락처】 leesj601@hanmail.net